

지방소득세 인상안 중앙-지방 지자체 빈부격차만 키운다

광주 세수 증대 2.5% 불과
경기도 25%·울산 7%

세수 혜택 절반 수도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財政)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광주시 등 산업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국민의당·비례)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에서 비롯된 세수 확충 효과의 50% 가량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정부는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 통

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 효과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의 지자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 과세표준별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해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세수 효과는 255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이 절반에 가까운 48%인 1236억원의 세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가 많은 울산과 경북 등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4.6%로 가장 많은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고 이어 서울 20%, 충남 9%, 울산 7%, 경북 6.7% 순이었다. 광주시와 전북은 각각 2.5%와 1.8%에 그쳤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6.2%로 추정됐다.

지방 공간을 채우려는 법안이 이른바 '부자 지자체'만 더 배불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 증가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2000억원 이상의 법인을 찾아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인상안에 해당 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보완장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세를 내려 보내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역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자주 자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주면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현금성 급여형태의 복지사업도 전에 국고보조로 전환해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자연과 농부가 함께 그린 가을 풍경화

10월 수확을 앞둔 구례군 상동면 사포마을 다랭이논이 노랗게 물들었다.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사포마을 다랭이논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과 농부가 함께 그려 낸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심사냐 반려냐... 민간공원 1단계 사업 조만간 결정

광주시 공공성 증진 구체적 가이드라인 만든 뒤 심사할 듯
13일 공원조성·민간공원 소위...17일 민관거버넌스 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제안서의 반려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 제안서 반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최근 끝낸 광주시는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12일 독일에서 귀국하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최종 보고해 방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1단계 사업대상인 수광공원(제안서 제출업체 4곳), 마북공원(4곳), 송암공원(3곳), 봉산공원(1곳) 등 4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12개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제안서는 미개봉 상태다.

시는 1단계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

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안서 반려 후 국토교통부의 개정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따라 재공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 제3차 회의에서는 ▲1단계 공원 사업제안서 반려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사나 산림 등으로 인한 개발 불가능지역 공원 부지 우선 해제 ▲지방채 발행 등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단계 공원 사업제안서 반려와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선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민간공원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분쟁 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보다는 심사 착수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성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시가 마련해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한 후 제안서 심사에 나서자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도시공원 매입 및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는 도시철도 2호선 등으로 인해 2023년까지 예산 700억원과 지방채 18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진숙 광주시의원은 도시공원 관련 예산 규모를 매년 200억원씩 늘려 편성, 2023년까지 13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오는 13일 도시공원 조성소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소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일부 공원 부지 해제 방안, 지방채 등 공원 매입 및 조성 재원 조달 방안, 2단계(중앙·중외·일곡·영산강 대상·송정·신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제4차 회의에서 이들 방안을 최종협의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바닷속 시한폭탄' 침몰선박 2180척 31척은 기름 가득

우리나라 해역에 침몰된 뒤 인양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이 2180척에 이르고 이 중 31척은 기름이 가득 실려 있어 향후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선박은 현장조사 결과 잔존유를 무려 8만2000ℓ나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체 강도가 약화돼 잔존유 유출 가능성이 큰 상태지만 당국은 적절한 대책수립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전국 침몰선박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은 2723척에 달했다.

<2면에 계속>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부 605-1115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큐슈, 야마구치)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운항 / 화, 금, 일요일 출발)

출/도착시간 무안(18:20) → 기타큐슈(19:30), 기타큐슈(20:20) → 무안(21:30)

[실속] 북큐슈 549,000원부터
[실속] 야마구치 559,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629,000원부터
북큐슈 온천호텔 559,000원부터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한요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다낭(10:40), 다낭(14:40)→무안(20:30)
금요일 출발출/도착시간무안(21:35)→다낭(00:10),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립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94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 포함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등2003-1호
* 공동호간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5만원(해외여행), 국내여행 5만원(국내여행),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세금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단체, 기사/가이드, 렌터카, 숙박, 식사, 음료, 교통비, 여행자보험)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